출장 결과 보고서

□출장 목적: 동아시아 가족 데이터 수집, 해외 연구자 섭외 및 네트워크 구축, 국제 세미나 개최를 위한 미국인구학회(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PAA) 참석

□출장자: 신윤정 연구위원

□출장 기간: 2014년 4월 30일 ~ 5월 5일 (4박 6일)

□출장 지역(방문 기관): 미국 보스턴 (PAA 학회장, Boston Marriott Copley Place)

□과제명: [수탁14-023-00]동아시아가족정책비교연구

□일정별 활동 내역

년/월/일	행선지	방문기관/면담자	세부 활동 내역
2014/4/30	서울-보스턴		이동
2014/5/1	보스턴	PAA 학회장/Sureeporn Punpuing(태국, Asian Population Association 사무국장), Terrence Hull (Asian Population Association 의장),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동아시아 지역 협력 연구 기관 연구자 회의 -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OECD 한국센터 국제 세미나 발표 주제 논의 - 아시아 인구 학회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2014/5/2	보스턴	PAA 학회장/Wei-Jun Yeung (싱가포르), Keita Suga(일본), Stuart Bastern (영국), Tomas Legrand (IUSSP 차기 회장)	- 동아시아 지역 협력 연구 기관 연구자 회의 - 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 OECD 한국센터 국제 세미나 발표 주제 논의 - 세계 인구 학회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한 논의
2014/5/3	보스턴	PAA 학회장/Olivier Thevenon, Laurent Toulemon, Ariane Paihe (INED), Wendy Sigle-Rushton (런던 정경대)	-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간의 연구 네트워크 강화 - 동아시아 가족 정책 비교 연구 발전 방향 모색 - OECD 한국 센터 국제 세미나 발표 주제 논의
2014/5/4~5	보스턴-서울		

□일정별 결과 보고서

1. 2014년 5월 1일 목요일

- 면담자: Sureeporn Punpuing(태국, Asian Population Association 사무국장), Terrence Hull (Asian Population Association 의장),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요 면담 내용
  - ●태국은 지난 20년 기간 동안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더 이상 인구 대체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모멘텀을 잃어 버렸다고 지적되고 있음.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선호하는 가족원 수도 감소하고 있어 두자녀를 선호하는 것에서 한자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세자녀를 선호하는 것은 두자녀가 같은 성일 때 임. 최근 직업 활동을 시작한 여성들 사이에서 기대 가족원 수가 가장 낮으며 이러한 적은 가족원 수에 대한 선호는 당분간 태국 인구 현황에서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임
  - ●태국의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은 특히 현대적인 일자리 분야에서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현재까지도 두 명의 자녀를 가진 가족이 하나의 가족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두명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비중의 여성들이 오직 한명의 자녀만을 낳기를 원하고 있음
  - ●태국에서도 여성의 근로 상태와 유형이 두 번째 자녀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전통적인 유형의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두 번째 자녀를 갖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 인구학회(Asian Population Association: APA)가 2015년 7월 27~30일 동안 말레이아 쿠알라룸프루에서 개최할 예정임. 논문 초록 제출마감은 2014년 9월 15일임. 동아시아 가족 정책 비교 연구는 동 학회의 주제와 매우 밀접함으로 논문 초록을 제출하고 발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 PAA 참관 Session
  - ● 오전 8시 30분 ~ 10시: 여성 노동 참여와 가족
    - * 주제: 독일과 미국의 일과 가정 생활 전달 과정, 영국의 초기 베이비 부머들의 생애주기고용율변화, 자녀 출생부터 9세에 이르기까지 모성 취업 유형 변화, 자녀 초등학교 재학 시기 동안 미국 여성들의 임금 노동 참여
  - ● 오전 10시 15분 ~ 11시 45분: 유럽 국가 가족 정책 현황 및 비교
    - * 주제: 유럽 국가 가족 정책의 경향: 개혁의 견인 및 최근 발달, 국제 비교적인 관점에서의 모성, 결혼, 기업가 정신, 중앙 및 동유럽 국가의 보육 정책 비교, 단시간 노동과 일과 가정 양립 현황: 24개 국가의 젠더 레짐
  - ● 오후 1시 ~ 2시 30분: 저출산
    - * 주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회경제발달, 양성평등, 저출산, 저출산과 경제발달의 변화하는 관계: 256개 유럽 지역 분석 결과, 과거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출산율 현황: 서구 유럽 국가와 양상이 유사해 지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출산율 현황
  - ● 오후 2시 45분 ~ 4시 15분: 가족 현황과 경제 불평등

* 주제: 이혼이 자녀의 심리사회학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영국과 미국의 증가하는 불평등, 소득 분포에서 부성의 프레미엄, 가족 구조와 불평등의 재생산, 여성의 고용, 비급여 노동, 정부 지원 서비스, 경제적인 불평등

● 오후 4시 30분 ~ 6시: 가정 내 성평등의 인구학적 결과

* 주제: 전통과 평등: 이혼 추이에서의 비선형성, 성역할 태도가 부모됨으로의 이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돌봄의 공유: 협상, 만족 그리고 그 결과, 북구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및 이혼

2. 2014년 5월 2일 금요일

- 면담자: Keita Suga(일본), Stuart Bastern (영국), Tomas Legrand (IUSSP 차기 회장), 조영태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요 면담 내용

* 일본의 최근 장래 인구 추계는 합계 출산율이 현재의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고 가정하고 있어 심각한 인구 감소화 고령화가 예상되고 있음. 노동 참가율 상승에 의해 소비자/생산자 비율의 상승은 회피할 수 있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일본 경제에 주는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서 혼인율 저하의 영향이 크지만 결혼 출생율의 저하도 영향을 주고 있음. 일본에서의 출생율 저하는 자녀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자녀를 낳도록 하는 사회적인 장애가 크기 때문임. 이러한 사회적인 장애에는 직접 비용 상승, 노동 시장의 악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일본은 1990년 초부터 출산율을 상승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정책적인 수단으로 아동 수당, 육아 휴직, 워크 라이프 밸런스 캠페인, 육아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2009년도 정권 교체시기에 민주당은 아동 수당 확충이라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훼손한 바가 있음
* 산업화를 이룩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30년 동안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음.
* 동 기간 동안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일본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의 인구 규모가 아동과 노인 등 부양 인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소위 “인구배당기”가 가져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어서 인구 고령화가 가져다 주는 첫 번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구배당기”는 장기간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전체 인구가 감소가 되기 전에 가져다 주는 혜택에 불과함. 현재 인구 배당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게 공적이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것을 함의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 생산성, 세대간 정의,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
* 세계인구학회 총회가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할 예정임. 세계인구학회에서는 각 국가의 출산율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및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일로 사료됨

- PAA 참관 Session

● 오전 8시 30분 ~ 10시: 아동에 대한 투자: 웰빙에 대한 함의점

* 주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출과 자녀의 사회감성적 뱔달, 여성의 교육 수준과 부모의 투자: 아동의 건강에서의 관점, 인간 발달의 재분배: 복지로부터 얻는 점과 복지로부터 잃는 비용

●오전 10시 15분 ~11시 45분: 사회안전망, 가족, 경제적 결과

* 주제: 지지의 가치: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사적인 안전망, 별거의 경제적 결과 추이, 아동에 대한 지원이 TANF 지원을 받는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실업 보험 프로그램 참여와 아동 성과

●오후 1시~ 2시 30분: 출산 시점

* 주제: 부모가 되는 경로의 세대간 분석: 과거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대공황 시기 동안 출산율에 미치는 템포 효과, 결혼과 자녀 출산에 장애가 되는 인구학적인 효과, 전쟁과 출산 시기의 변화

●오후 2시 45분 ~ 4시 15분: 유럽과 캐나다의 출산율

* 주제: 유럽 국가의 저출산에 미치는 주요 영향, 캐나다의 혼인과 혼인외 출산의 변화, 노르웨이 아버지 참여와 출산율, 벨기에, 프랑스, 독일에서 육아 휴직 참여가 두 번째 자녀 출생에 미치는 영향

3. 2014년 5월 3일 토요일

- 면담자: Olivier Thevenon, Laurent Toulemon, Ariane Paihe (INED)
- 주요 면담 내용

* 1980년대 이후 유럽 및 국가에서 가족 정책을 추진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경향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가족의 웰빙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음. 예를들면 영아 사망률, 기대 수명, 교육 수준의 향상은 가족의 웰빙 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아동 빈곤은 향상되고 있지 않음
* 기대 수명과 합계 출산율은 과거 40년 기간 동안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여 유럽 국가와 OECD 국가들 간의 인구 구조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음. 1980년대 이후 결혼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상승하였음
* 최근 경제 위기는 고용율과 가구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007~2008년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아동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여성 고용율은 2010년까지 하락하였음. 2000년대 까지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던 출산율의 회복은 멈추게 되었으며 2005년 이래로 감소하던 이혼율은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으로 돌아서게 되었음
* 이러한 유럽 국가의 가족 및 가족 정책의 현황 비교 분석을 동아시아 국가 비교 분석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PAA 참관 Session

●오전 9시 ~10시 30분: 가족 정책과 출산율

* 주제: 공공정책의 교육적인 효과가 완결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유럽 정책과 출산율, OECD 국가의 육아 휴직 정책과 출산율, 출산율과 가족 정책: 국제적인 비교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15분: 젠더와 일과 가족에 대한 시간 배분

* 주제: 가사 노동에 있어서 양성 격차: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비교, 아들, 딸 그리고 부모의 시장에서의 노동과 가사 노동, 아버지들의 부성 휴가 사용과 자녀 양육에 소요하는 시간, 맞벌이 부부의 부모 역할 노동과 여성들의 웰빙 수준

●오후 12:30 ~ 2시: 인구 고령화의 측정과 추계

* 주제: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의 고령과 부양에 대한 재정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고령과 경제적 의존성의 국제적인 차이, 인구 고령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